

역사와의 대화에서 얻는 생명력

《다시 찾는 우리 역사》 펴낸 한영우 교수

수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역사는 새롭게 기억된다. 혼돈과 뒤뜰림 속에서 새 방향을 찾자 할 때 옛것은 귀하다. 지난 세월은 새로운 기억의 잣대를 통해서 다가올 역사를 전망한다. 한민족의 전 역사를 새로운 시간의 잣대와 역사의 창으로 들여다본 한영우 서울대 교수(59)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경세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대화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역사는 해석”이라는 한영우 교수의 역사관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철저히 배어 있어, 술한 개설서들 속에서 독특한 개성으로 빛난다.

개성 뚜렷한 개설서

“개설서는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발상에서 보자면 문민문화가 절정에 달했던 조선왕조가 문약에 빠져 나라를 망쳤다고 해석되고 힘을 중심에

놓고 보면 만주를 끌어안았던 고구려가 얼핏 빛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은 고도의 문명정치로 519년의 장수를 누렸고 고구려는 지나치게 힘을 숭상하고 전쟁을 선호해 멸망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역사는 새로 씌어져야 할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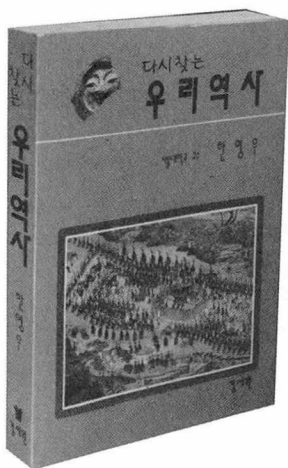
한교수의 저서는 몇가지 점에서 이제까지 통사와는 다른 개성을 보인다. 한교수는 유년기에 태평양전쟁을 경험했고, 소년기에 한국전쟁을 만났으며, 청장년기를 최루가스 속에 살아왔다. 그의 개인 역사체험은 곧 우리 국민 다수의 경험이기도 한데, 이번 개설서에는 성장과정 속에서의 체험과 역사를 공부하며 우리 역사에 지녀온 애정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한교수의 역사관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역사관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고 미래를 열 것인가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그 열쇠를 한교수는 ‘역사와의 대



한영우 교수

온 국민이 읽을 만한 ‘역사 교본’



이제까지의 개설서가 전문가를 위한 것이었다면 한영우 교수의 책은 중학생 이상 온 국민이 읽을 ‘역사교본’이라 할 만하다. “역사는 오늘과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한교수의 생각은 책의 행간마다 배어 있다. 힘 있고 간결하며 한자를 배제한 쉬운 글도 일반인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 책의 미덕이다. 650여

쪽에 달하는 두툼한 분량에는 좀체 보기 힘든 500여 점의 사진자료들이 글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로 풍성하게 펼쳐 있다. 만주 집안의 고구려 장군총 분포도, 평양·부여·개성의 고적지도, 경주·남한산성 지도 등 완벽한 고적지도도 역사를 활동적으로 읽히게 하는 요소다. 규장각 재임시절 술한 기록더미 속에서 발견한 귀중한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됐다. 또 첩이나 소설까지 포함시킨 <왕실세계도>는 정치사 연구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TV사극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시대구분에 따라 6편으로 나눈 책의 서술은, 역사는 누적적으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피라미트 구조를 이룬다. 또한 역사는 가까운 시대일수록 중요하다. 원칙에서 해방 이후 현대사와 김영삼 정부 출범의 최근 역사까지 포함했다. ‘문화사’에 많은 비중을 둔 점도 특징이다. 이 책의 전체를 꿰뚫는 역사관의 핵심은 ‘법고창신’이다. ❖

화 속에서 찾는다. 옛것을 숭상하고 현재를 극복하면서 역사는 발전해왔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요, 동양에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 혹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법고창신주의는 우리 역사에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샘물로 파악된다. 한교수는 우리 역사 속에서 과거 조상의 생명력을 찾고 미래의 생명력을 열어보일 수 있다고 믿는다.

예컨대 고려와 조선의 두 왕조가 1천년의 긴 역사를 이끌어간 것은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다. 장기집권의 배경에는 ‘법고창신’의 정신이 배어 있다. 새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고려는 고구려의 영광을, 조선은 단군과 기자의 영광을 국호에 담았다. 또 고려는 송·요·원의 문화교류에서, 조선은 명·청과의 문화교류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며 어깨를 겨뤘다. 개방적인 ‘창신주의’인 셈이다.

한국인의 자존심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세를 위해 지었다는 ‘훈요십조’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과 우리와의 토풍(土風)이 다르므로 우리에게 맞는 언어와 의관·습속을 가져야 한다는 자존심이었다. 조선후기 실학과 북학, ‘동도서기’를 원칙으로 삼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정책 등도 한국 역사를 이끈 생명력, 즉 ‘법

고창신’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의 자존심 일깨운 시대구분

한교수의 역사해석은 이번 저서의 ‘시대구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역사는 해석이고 과거의 사건, 사실들은 죽어 있는 무덤일진대 죽은 과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입니다.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시대구분이지요. 지난 1세기간 우리가 의존해온 사관은 ‘국수적 민족주의’ 아니면 ‘사적 유폐론’이었습니다.”

편협한 국수주의와 주체성 없는 세계주의를 배격한다는 뜻이다. 20세기 전반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약육강식’과 ‘사회진화론’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봤다. 역사가의 관심이 자연히 전쟁이나 영토문제에 집중되니 만주를 얻은 고대사는 영광스럽고, 만주를 잃은 신라 이후 역사는 부끄럽게 보았다. 도덕과 평화를 사랑한 유교문화를 사대주의로 비판하고, 유교문화가 꽃핀 조선왕조는 어둡고 저주스런 시대로 비쳐진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구성체론’ 세계사적 보편사관에 따른 시대구분법은 삼국시대부터 19세기 중엽까지 2천년을 ‘봉건사

'과학기술시대' 라고 하는데

이정일

일진사 대표 · 과학기술출판협회 이사

한 민족의 전 역사를

새로운 시간의 잣대와 독특한

역사의 창으로 들여다본

한영우 교수의 저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대화한

기록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생명력인 '법고창신' 이

또한 미래를 열어갈 생명력이라는

믿음이 책의 곳곳에

배어 있다.

회'로 봄으로써 우리 역사에 적용하는 데 따른 모순이 드러난다.

여기서 실추된 역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한교수의 '역사학적 시간의 금나누기'가 시작된다. 우선 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라는 용어로 우리 역사를 시대구분한다. 이는 시간에 따른 시대구분이면서, 사회성격의 변화를 발전으로 이해하는 의미다. 둘째는 사회성격의 의미로서 삼국 이전을 '연맹국가', 삼국과 남북국을 '귀족국가', 고려를 '귀족·관료국가', 조선을 '관료국가', 개항 이후부터 일제시대까지 '근대산업국가', 해방 이후를 '민주국가'로 이름 붙였다. 이러한 시간의 금나누기에 따라 한교수가 그린 역사의 모습은 새롭게 태어난다.

일본이 한국 강점 이후 가장 평가절하한 인물로 첫손 꼽히는 '고종'에 대한 한영우 교수의 해석은 그런 관점에서 전혀 다른 역사 해석을 가능케 한다. 고종의 개화정책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빌려 왕조를 부강하게 하자는 '자강정책'이었고, 전면 서양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1897년 고종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연호를 '광무'로 고쳐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세웠고, 이 용의력으로 하여금 내장원 제정을 관리케 해 식산흥업(殖産興業)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고종의 '광무개혁'은 정치제도면에서는 전제군주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국방·산업·교육·기술면에서 놀랄 만한 근대화의 성과를

거뒀다. 만약, 일본의 침략과 방해가 없었다면 대한제국은 빠른 속도로 근대산업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게 한교수의 시각이다.

그런 연장에서 명성황후의 척족인 민씨 일가 동도개화파의 주체적인 근대화정책은 재평가돼야 한다는 것. '고종'을 주어로 삼지 않고 독립협회나 갑신정변을 중심으로 썼던 과거의 개설서와는 성격차가 뚜렷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우리 역사는 이렇듯 한교수의 자신감 있는 역사해석 속에 이 책에서 하나하나 재생되고 있다.

역사와 대화를 시작할 때

"역사학의 본질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느냐의 문제는 결국 역사학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역사로부터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런 물음 속에 역사와의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조선사가 전공인 한교수는 이미 《조선전기 사회경제 연구》 《조선전기 사회사상 연구》 《조선 후기 사학사연구》 등 일련의 조선사 연구저서와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 《한국의 문화전통》 등 폭넓은 역사관을 다룬 저술로 탄탄한 학문 기저를 쌓아놓았다. 틈틈이 발표한 '역사에세이'도 올 봄에는 나올 예정이다.

원래 미술대를 희망했던 한교수는 지난 규장각 관장 재임시절 (서울고지도전시회) 때 출판하는 고지도 채색을 직접 작업할 만큼 '그림'에도 마음을 많이 두고 있다. 이번 개설서의 표지 디자인에서부터 본문의 사진 자료 선정과 배열까지 한교수의 손길이 직접 미친 것은 이런 '미술감각' 덕택이다.

한교수의 한국역사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은 질풍노도와 같았던 청년시절을 겪은 4.19세대의 원초적 열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지식인으로 하여금 술한 논문을 피뎌며 써내려 갔던 격정이 한교수에게 아직도 남아 있다.

"역사는 온몸으로 쓰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글쓰고,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는 이 나라 땅을 직접 밟으며 이해해야 합니다." — 김지원 기자

현재 국내에는 여러 출판전문 정보지가 발간되고 있고, 대형 매체에서도 출판정보 특집을 주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특정 분야의 도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도서 전문 출판사의 소개나 신간 안내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국가의 국력은 과학기술의 기반 없이는 건설될 수 없다. 한 나라는 물론, 세계의 운명이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있고, 또한 생활환경의 개선이나 문화발전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현대사회의 모든 공공적 정책결정이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인류복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기본으로 할 때 과학기술의 원론적 가치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출판인은 서적이거나 기타 문자를 통하여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와 지식의 전달매체로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려 한다.

또, 과학기술 출판인들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고 최신 과학기술의 지식 및 노하우의 조기습득과 기술혁신의 정보 전달자로서 새로운 이미지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희망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고 싶어한다.

그러나 각종 매스컴 (출판전문)에서 다루는 출판정보들은 과학기술분야는 아예 제외시킨 듯한 느낌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흔히 전문가가 없어서, 또는 특정분야이기 때문에, 아니면 과학기술 출판사들이 신간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등 오히려 출판사의 비협조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가끔 듣는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다.

과학기술 서적을 전문(주업)으로 출판하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원수가 150여 개사가 된다. 이들 중 열악한 환경과 영세성을 감내하며 수십년을 과학기술 서적만을 고집하는 이가 적지 않다.

과학기술 출판은 아직 대중적 기반이 미



이정일 사장.

흡하여 한정된 독자를 대상으로, 즉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광고료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광고도 못하고 저술자도 부족하다. 설상가상으로 출판전문지에서조차 도서의 선정, 소개, 서평 등의 지원은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각종 신간을 소개할 때 차등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최근 10년간 (1985~1994) 과학기술출판 종수를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특히 순수과학 분야에서 일본은 총 출판종수 대비 8%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1.6%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 출판이 부진한 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우선 각종 매스컴, 특히 이왕 다루는 출판정보지부터라도 과학기술 출판 의욕(意欲)이나 출판 위상, 나아가 과학기술 지식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엄청난 과학기술 변혁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도서가 다른 분야의 도서보다 사회문화적으로 그 중요도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각종 매스컴에서 과학기술출판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류문명의 발달사가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사이며, 지금까지 산업혁명과 물질문명시대를 선도하였고, 또 미래는 더욱 정보화된 과학기술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과학기술 출판은 혹시 언론으로부터 '홀시(忽視)'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져본다. ❖